

빠른 정답

[제8회]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④	2	⑤	3	②
4	①	5	④	6	②
7	③	8	③		

[제9회]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②	2	⑤	3	①
4	⑤	5	③	6	④
7	⑤	8	④		

정답과 해설

[8회차]

크롤링과 미러링

1. 답 ④

정답

④ 4문단에 따르면 웹 크롤러는 방문한 사이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해설

- ① 크롤링 시 페이지에서 획득한 URL 정보를 대기열에 누적하며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② 미러링은 원본 사이트에 복제하기 어려운 요소가 없을 때 콘텐츠와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웹 크롤러는 초기에 주어진 URL을 바탕으로 웹 탐색을 시작하기에 이러한 URL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방문을 시작할 수 없다.
- ⑤ 미러링을 통해 원본 사이트의 서버 부하를 분산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답 ⑤

정답

⑤ 크롤링과 미러링은 모두 사이트 내부의 모든 텍스트 정보를 수집한다.

오답해설

- ① 크롤링과 미러링 모두 HTML이 아닌 HTTP 요청을 통해 페이지를 수집한다고 하였다.
- ② 미러링은 복잡한 구조의 요소 수집이 어렵다고 하였다.
- ③ 크롤링도 페이지 방문 시 페이지 내부의 URL을 조사한다..
- ④ 1문단에 따르면 미러링과 크롤링은 모두 페이지의 HTML 분석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3. 답 ②

정답

② ㉠은 각각의 고유한 ㉡(URL)을 포함하는 문서인 페이지들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오답해설

- ① ㉠은 웹상 특정 자원의 위치가 아니라 사이트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 ③ ㉠은 고유한 ㉡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URL이 여러개의 사이트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 ④ ㉡(URL)은 정보의 위치를 지정한다고 하였으므로 ㉡(URL)없이 사이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 ⑤ ㉢(페이지)은 URL을 통해 위치가 지정되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정보를 유지하지는 않는다.

4. 답 ①

첫 번째 동기화는 10:00~10:05,
두 번째 동기화는 10:05~10:10,
세 번째 동기화는 10:10~10:15,
네 번째 동기화는 10:15~10:20이다.

정답

① 미러 사이트와 동기화 시점에 지연을 일으키는 요소는, 복잡한 구성요소가 아닌 원본 사이트의 잦은 변동이다.

오답해설

- ② 콘텐츠 X의 수정 시점은 두 번째 미러링 작업 중 발생하기에, 두 번째 미러링 완료 후에야 반영 가능하다.
- ③ 콘텐츠 C는 네 번째 동기화 완료인 10시 20분에 반영된다.
- ④ 콘텐츠 B가 10시 11분에 추가되면 세 번째 동기화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 ⑤ 6문단에 따르면 원본 재검사 후 변동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기에, 추가 변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원본 재검사가 미러링 과정에서 시행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현대소설

EBS 수능특강 32쪽 연계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5. 답 ④

정답

④: 뒷동산에서 '어머니'는 '나'와 달리 '아무 말씀 없이 가만히 서'있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나'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기에 '아저씨'는 그의 소개로 '나'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을 수 없다. 또한, 누구의 소개로 인해 '나'의 집에 지내게 되었는지 뒷글에서는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어느날 '나'가 '아저씨'가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저씨'가 '나'에게 좋아하는 반찬을 묻자, '나'가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아저씨'에게 좋아하는 반찬을 물었으므로 선지에 진술된 질문의 순서는 옳지 않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외삼촌은 '나'와 '어머니'와 같이 뒷동산에 가지 않았다.
- ⑤: '어머니'가 달걀장수에게 달걀을 사지 않는다고 하자, '나'는 놀라서 때를 쓸려고 했으나 용기가 없어져서 그러지 못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6. 답 ②

정답

②: '어머니'는 사랑손님이 삶은 달걀을 제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전보다 달걀을 많이 사게 되었다. 또한 이것을 사랑손님의 상에 달걀을 놓게 되었다. 따라서 '어머니'가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랑손님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은 앞선 사랑손님과 나의 대화를 종합하여 어머니에게 전하는 말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에서 드러나는 공간의 모습은 정거장에 기차가 없는 것이다. 이때, 사랑손님은 기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가고자 하고 '어머니'는 정거장이 빨리 내려다보이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있으며 후에 기차가 도착하고 출발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본다. 이러한 모습은 기차가 없는 정거장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과 ㉢은 각각 달걀장수의 말과 그에 대한 어머니의 대답이다. 이때, 달걀장수는 어머니가 오늘 달걀을 사지 않으려 한다는 정보를 모르고 '나'의 집에 방문하였다. 따라서 두 인물 간의 정보의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에서 어머니는 달걀을 먹는 '나'를 반영하지 않고 발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들은 '나'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7. 답 ③

정답

③: 달걀은 '나'와 '사랑손님'이 같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둘을 매개하여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 사게 되었다. 이는 어머니에게 일어난 변화로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달걀은 '어머니'의 다른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②: 달걀은 '나'가 의문을 품는 물건이 아니며, 인물에 대한 낯섦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 ④: '나'의 말을 들은 '어머니'의 반응은 '나'의 집안 형편에 대한 어려움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 ⑤: '어머니'와 '달걀 장수'의 대화를 통해, '나'와 다른 인물의 갈등이 발생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8. 답 ③

정답

③: ㉢은 서술자가 '나'인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 사고 '나'와 '아저씨'에게 삶아서 주는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에는 '나'에 대한 사랑손님의 행동이나 감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독자가 이를 통해 '나'에 대한 사랑손님의 감정을 능동적으로 이해해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에서 서술자인 '나'는 경어체인 '요'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말함으로써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어체와 구어체를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독자는 이에 대해 현실감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은 서술자가 '나'의 말에 대한 '어머니'의 표정을 묘사한 말이다. 이를 통해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묘사된 '어머니'의 생각을 독자가 능동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은 서술자가 기차가 사라질 때까지, 기차 굴뚝의 연기가 하늘 위로 흩어질 때까지 어머니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과 '기차 굴뚝의 연기가 흩어질 때까지'라는 시간에 대한 묘사를 함께 생각하면 독자는 작중 상황을 능동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은 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다는 것이며, '나'는 어디 아픈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 이때, 서술자는 '나'이고, 이러한 묘사된 모습을 통해 독자는 상황에 대한 인물의 감정을 어린아이의 시선을 빌려서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9회차]

농지법, 원산지표기법, 식품위생법

1. 답 ②

정답

- ② 농지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을 경우 금지되어 있지만, 이 경우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나 위탁 경영을 위한 일정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처분 명령은 비농업인이 경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내려질 수 있는 조치이다.

오답해설

- ① 비농업인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사전에 농지 이용 계획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 ③ 거래명세서의 보관 의무는 원산지표시의 사후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 ④ 온라인 쇼핑몰에서 축산물의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과 같은 행정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다.
- ⑤ 급식소 영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영업은 행정 제재 대상이라고 하였다.

2. 답 ⑤

정답

- ⑤ 원산지를 속여 광고하는 행위는 원산지표시법(㉠)과 허위 광고로 인해 식품위생법(㉡) 모두를 위반하는 것이다.

오답해설

- ①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더라도, 거짓 표시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하였다.
- ② 포상금 제도는 ㉠(원산지표시법)에서 언급된 제도이지, ㉡(식품위생법)의 관리 방식이 아니다.
- ③ ㉠(원산지표시법)은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위반이 아니라 허위 표시나 누락이 위반이다. 오히려 ㉡(식품위생법)이 준수를 위해 관청이 필요하다.
- ④ 형사처벌은 ㉠과 ㉡ 둘 다 가능하다고 하였다.

3. 답 ①

정답

- ① 원산지표시법상 매장도 원산지 표시의 의무 주체이며, 본사가 제공한 식자재의 원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더라도 매장은 표시 위반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의 행정제재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답해설

- ② 원산지 허위 표기는 원산지표시법 위반이며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다.
- ③ 사업장 명칭 공표는 원산지표기법이 반복적으로 위반된 것이 파악되었을 경우의 제재이다.
- ④ 원산지 허위 광고는 강제처분 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 ⑤ 이물질이 유해 물질이어도, B 본사가 유해 물질을 의도적으로 유통한 것인지, A 매장의 과실로 유해 물질이 유입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4. 답 ⑤

정답

- ⑤ ㉢ '엄격히'는 문맥상 엄격한 규제를 의미하므로 '폭넓게'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 '강화'는 '높이고'로 바꿔 쓸 수 있다.
- ② ㉡ '본연의'는 '올바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③ ㉣ '이행하지'는 '다하지'로 바꿔 쓸 수 있다.
- ④ ㉤ '누락'은 '빠뜨리고'로 바꿔 쓸 수 있다.

현대시

(가) EBS 수능특강 98쪽 연계

김기택, 「벽」

(나) 박두진, 「청산도」

5. 답 ③

정답

- ③: (가)는 벽의 모습을 묘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해설

- ①: (가)에서는 화자는 공간의 이동을 하고 있지 않다.
- ②: (나)에서 음성상징어는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대상의 동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④: (가)는 승객들이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벽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⑤: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가)에서는 영탄적 어조를 확인할 수 없으며, 대상에 대한 경외감 또한 확인할 수 없다.

6. 답 ④

정답

- ④: ㉠은 할머니가 내리고자 하는 공간이므로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는 '나'가 엮드리는 향기로운 풀밭을 보유한 공간인데, 이때 '나'가 향기로운 풀밭에 엮드림으로써 감정이 촉발되므로 이를 통해 '나'와 풀밭이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은 '할머니'가 다른 존재와 연대하는 공간이 아니며, ㉡는 '나'가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 아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는 '나'가 다른 존재를 떠올리는 공간이나, ㉠은 '할머니'의 의지가 실현되는 공간이 아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는 화자가 '잊어버린 하늘'을 생각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은 문이 열리고 닫히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며, 그 안의 벽들은 할머니를 더 세계 조이기도 하는 변화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는 변함없는 공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은 할머니를 둘러싼 벽이 더 세계 조여지며 '할머니'에 대한 억압이 강해지는 공간이지만, ㉡는 '나'가 보고 싶어 하는 대상인 '불이 고운 사람'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7.

답 ⑤

정답

⑤: ㉔은 '아침'의 긍정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나, 이러한 아침은 '불이 고운 사람'이 화자에게 달려오는 아침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㉑은 할머니가 꿈지락거리는 것을 화자가 이전부터 느끼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②: ㉒은 '할머니'가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그 움직임은 꿈지락거리는 것임을 빗대어 표현하는 말이다. 이는 '할머니'의 움직임이 미미하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③: ㉓은 흰 구름이 건너간 자리의 하늘에 대해 표현하는 말이다. 이는 '흰 구름'이 있었던 하늘이 '흰 구름'이 없어졌으므로 깨끗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④: ㉔은 현재 부재하고 있는 보고 싶은 하늘에 대해 표현하는 말이다. '아른아른'을 통해 화자의 시선에서 '하늘'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8.

답 ④

정답

④: (가)에서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꿈틀거림에도 '점점 작아지는' 것은 소외로 인한 할머니의 절망감이라 보기 어렵다. 이는 할머니의 의지가 소외로 인해 실현되지 않는 모습이라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가)에서 할머니가 혼자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일상적 공간인 전동차에서 인물이 소외당하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②: (나)에서 화자가 '티끌' 부는 세상, '벌레'같은 세상이라 말하는 것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는 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③: (가)에서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은 전동차에서 내리고자 하는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는 소외를 묘사하는 것이고, (나)에서 화자는 청산에서 '너만 그리'고 있다. 이는 청산에서 필요한 것은 '너'뿐이라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청산이 '너'에 의해 완성되는 세계임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⑤: (가)에서 전동차에서 내리고자 하는 할머니에 대하여 승객들이 '빈틈을 더 세게 조이'는 것은 할머니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 승객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며 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에서 화자는 벌레 같은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빛난 아침이 이르면 불이 고운 '나의 사람'이 달려와 줄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빛난 아침이 이르면 '나의 사람'이 달려와 줄 것이라는 이상을 소망하고 있는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